



[산업] 이통사 구독경제 大戰 06



Economy

| | | | |
|------------|------------------|-----------|----------------------|
| 코스피 | 2068.89 (-15.18) | 코스닥 | 625.27 (-4.31) |
| 금리 (미국 3년) | 1.41 (-0.05) | 환율 (원/달러) | 1194.30 (+7.10) (4일) |

80년대생 임원 발탁... 연공파괴·세대교체로 불황돌파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시작했다. 경제를 뒤흔드는 글로벌 무역분쟁과 4차산업혁명에 맞서 안팎을 재정비하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는데 한창이다. 내부 방해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이어가면서 기업 발걸음에 제동을 걸었고, 정책 실패로 빈부격차와 불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메트로신문은 12회에 걸쳐 '경제이슈! 2019 & 2020' 기획을 통해 올해 분야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모습을 전망해본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인들을 찾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경제이슈! 2019 & 2020

재계는 격변하는 국내의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대 교체'란 카드를 꺼내고 있다. 능력 중심의 파격 인사를 통해 기업 나이가 빠르게 젊어지고 있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도 젊은 임원 선임 바람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정기 인사를 통해 34세 여성인 심미진 상무를 새로 선임했다. 입사한지 12년만이자, 최연소 임원이다. 임이란

<1> 재계, 젊은 임원이 뜬다

LG, 45세이하 상무 21명 선임
젊은 인재, 차세대 사업가 육성
삼성전자, 성과주의 인사 확대
SK·현대차 등도 '젊은피' 수혈

신임 상무도 1981년생으로 30대 임원이 됐다. LG전자 시그니처키친 스위트 김수연 수석전문위원도 1980년생이다. 그밖에도 LG는 45세 이하 젊은 상무



구분혁
에스코홀딩스 신임 대표이사



심미진
LG생활건강 상무



임이란
LG생활건강 상무

를 21명 새로 선임했다. 승진 인사 폭을 줄이면서도 젊은 상무 숫자는 그대로 유지했다.

LG는 젊은 인재를 중용해 과감한 도전과 빠른 혁신을 추구하고 차세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으로 파격 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광모 대표 취임 후 강조한 성과주의 역시 젊은 임원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다른 대기업들도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례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아직 인사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성과주의를 기반으로한 30대 임원을 대폭 기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기 인사에 앞서 1981년생 구자찬 상무를 시스템LSI 사업부에 영입하며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술직 임원인 펠로우와 마스터 제도도 운영 중인 만큼 성과주의 인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SK그룹은 이미 젊은 임원을 대거 기용해왔던 만큼, 올해에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이 임원 직급을 폐지하는 등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세대교체 시도는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젊은피 수혈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2017년 임원으로 발탁된 1979년생 장우준 상무를 필두로 40대 초반 임원 비중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도 젊은 임원폭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자율주행차 등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술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세대교체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4면에 계속>**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대한민국 무역 파이팅! 제56회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측광장 앞에서 한국무역협회 임직원과 무역아카데미 교육생들이 무역의 날 공식 슬로건인 '변화의 파고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으로'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모빌리티 시장' 주도 2025년까지 61조 투자 단행

2025전략, 3대 핵심 재무목표 발표

현대자동차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2025년까지 6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2025 전략'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핵심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신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영업이익률 8%를 달성하고,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5%대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4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주주·애널리스트·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 전략'과 중장기 '3대 핵심 재무 목표'를 발표했다.

이원희 사장은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가장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 경영전략의 핵심"이라며 "고객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가치를 실현하는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을 2025년 전략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2대 사업 구조로 전환, 각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해 2025년 글로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3대 전동차 제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제품군도 자동차는 물론 개인용 비행체(PAV), 로보틱스 등으로 확장된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인 플랫폼 기반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더해 고객에게 끊임 없는 이동의 자유로움과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현대차는 개인용 비행체를 개발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통합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배터리·수소전기차 신사업 본격화

현대차는 과거 물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손익과 물량, 지역과 지역, 내연기관과 전동차, 시장과 차종 사이의 균형을 갖추고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복안이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AI 국가전략 마련... 데이터 경제화 추진"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전략회의' 핵심개혁 첨예한 사회갈등으로 난관 혁신성장 '4+1 전략 틀'로 강력추진

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는 '드론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심지역 드론택배를 확산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 등 핵심 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보완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역점 추진

해운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앞으로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적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의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 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이다.

정부는 먼저 연내에 관련 규제·법·제도 확립 방안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국민 AI 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에 AI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AI 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

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 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연계·표준화와 가격산정을 통해 거래·구매 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4조원 투자해 신약분야 원천기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등 기초기술과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헬스규제개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